

# 스페인 오두막의 밤, 재현하던 기쁨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 ●

〈출판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

# Les nuits qui me

백순덕 | 렉토베르소 (www.rectoverso.co.kr) 대표

이 책은 1928년 10월 13일, 파리의 인쇄소에서 한정출판된 보리브르 Beau livre, 곧 아름다운 책이다. 본문지와 보호지는 '리브 Rives'에서 만든 벨랭 Velin지이며 본문 중간중간 투명무늬 Migrate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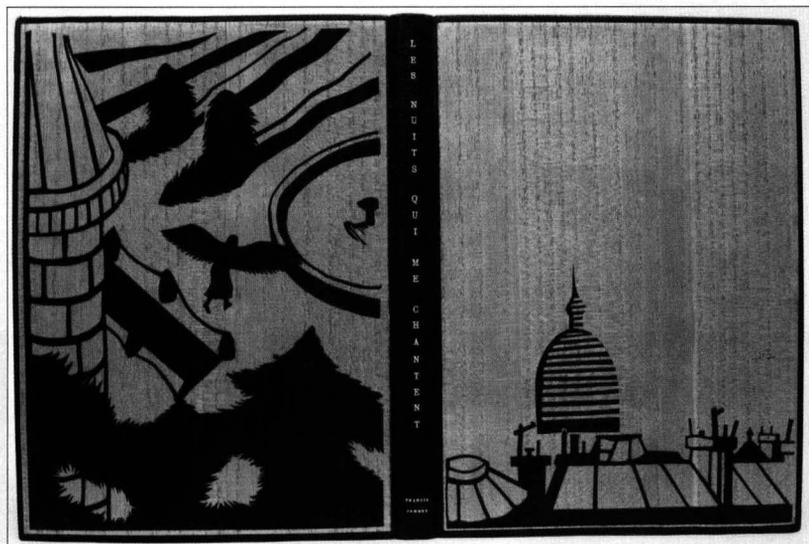
1589년 문을 연 Rives 제지소는 Arches(1469), Johannot(1634), Marais(1580)의 종이들과 함께 예술가들의 작품, 특히 판화작업 등에 이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고급 책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고급 수제종이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1968년 연합하여 각각의 앞 글자들을 딴 'Arjormarie'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책에는 Francis Jammes의 이국 취향 정서가 살아 있다. 또한 한 글자 한 글자의 활자체에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실려 있으며 삽화들의 선명함 속에서 텍스트는 꿈을 꾸다. 나는 이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을 제본에 실으려 노력했다. 얇고 큰

책에 어울릴 〈액자를 제본〉으로 결정하였다. 2주일에 걸쳐 여섯 모서리와 책등의 가죽을 갈아내는 것도 힘든 것이었지만 표지의 각 모서리 가죽들을 45°씩 감쪽같이 붙여야 하는 일은 더욱 힘든 작업이었다.

노동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부터는 창작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출판된 지 70년이 된(1996년 제본) 벨랭지의 색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나무로 만든 종이(Papier en bois)를 사용하고 가죽색과 나무종이를 염두에 두고 검정 Canson지를 선택했다.

본문을 보다가 인상적이었던 두 편의 글을 기억해 내고, 글과 함께 수록된 삽화 두 개를 표지에 인용하였다. 〈사랑받는 집의 밤〉, 〈스페인 오두막집에서의 밤〉을 Canson지로 오려붙이고 나니 정말로 책에서 노래하던 〈밤〉의 느낌들이 다가왔다. 책을 꾸미던 내 마음이 그랬듯이 이 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 Nocturne de la cabane en Espagne



Sur les tourelles dorment les tourelles et, par l'escalier que forment les branches des tilleuls et des cèdres, descend nappé par nappe, sur le gazon, l'obscurité transparente et bleue. Le banc de pierre, dans la nuit, le marbre, blanc comme un narcisse, du jeune dieu. Par la fenêtre entr'ouverte, le regard du poète plonge dans le parc. Son cœur ne va pas plus vite que le pas furtif d'une jeune fille. Celle-ci, fine et souple comme une feuille d'iris, s'arrête, repart, met sa main sur son sein encore clos. Elle attend ce qui n'existe point. Et l'adolescent ne trouble pas le charme de cette vision. Il respire à peine, de peur de la ternir. Qu'elle est gracieuse, dans sa robe dont il sait qu'elle est de la couleur du tabac clair! S'il lui disait qu'il

- 36 -



Nous allongions notre flânerie, laissant derrière nous la demeure plongée dans un songe qui devenait le mien. Et, dans la fumée de nos pipes, j'enveloppai ces vers de Charles Baudelaire :

*Il était tard, ainsi qu'une médaille neuve  
La pluie luit d'habit,  
Et la volubilité de la nuit, comme un fleuve,  
Sur Paris dormant ruisselait.*

*Et le long des maisons, sous les portes-oculaires,  
Des chats passaient furieusement,  
L'oreille au guet, au lieu, comme des ombres chères,  
Nous accompagnaient lentement.*

- 20 -

# chantent

## “스페인, 오두막집에서의 밤”

망루 위에서 잠을 자는 멧비둘기들,  
보리수와 삼나무 가지들의 형상이 계단으로 흘러내리고,  
안개에 의해 지면이 덮인 잔디 위  
파랗고 투명한 암흑.

...

반쯤 열린 창문으로는 시인의 시선이 공원에 잠기고,  
그의 심장은 어린 소녀의 은밀한 걸음보다 빠르지 않구나.

...

그리고 그는 밤 찌꼬리의 욕망으로 밤만이 존재하는,  
나무꾼의 오두막을 꿈꾼다.

- Nocturne de la cabane en Espagne -

제목. 내게 노래하는 밤들

Les nuits qui me chantent

175 X 235

제본명. 액자를 제본.

진회색 염소 가죽.

나무종이 위의 cansong지(découpage)

저자. Francis Jammes

출판. Ernest Flammarion